

담양 교육의 힘...이젠 도시유학 안합니다

올 졸업 초등생 전원 관내 중학 진학

郡 재정 지원·명문사학 창평고 효과

담양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광주로 전학 간 학생이 처음으로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담양 교육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는 '찾아오는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며 3년째 교육을 위해 매년 3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자한 담양의 교육 활성화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11일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전입·전출생에 대한 분석결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광주 등 타 도시로

옮겨 간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1명이 전북으로 이사를 갔지만 가족의 생계때문이 원인으로 교육 목적의 전출은 아니었다.

이는 매년 30여명 이상 발생하던 전출생이 지난해 9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처음이다.

담양군은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분기당 30여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그 성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의 명문고인 창평고 전경.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담양이 자랑하는 명문 사학 창평고등학교의 올해 대학입시 성적은 더욱 눈부셨다.

서울대 5명, 연·고대 33명, 의·치·한대의 10명, GIST·UNIST 2명, 한국교원대와 서울교대를 포함해 교육

대학 10명 등 전체 졸업생 270명의 75%인 200여명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학과 교육대학에 합격했다.

지방국립대인 전남대를 비롯해 전 북대와 부산대 등 기타 대학에 70여 명이 합격하며 졸업자 전원이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평고의 이같은 성과는 담양군의 아낌없는 재정지원과 창평고 학교법인인 월강학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평가다.

창평고 이형순 교장은 "담양군이 교육에 열정을 갖고 투자해 준 성과가 그 빛을 사서히 발휘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학생지도에 더욱 매진하고 선진 교수학습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 담양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강진 신천·고흥 해창만 등 4개 지구 388ha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5월까지 실시

道, 사업비 140억 투입

전남도는 올해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강진 신천, 강진 명주, 고흥 해창만, 진도 소포2 등 4개 지구 388ha에서 대구형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형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 중 오래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의 규격화, 규모화, 집단체 등을 통해 효율적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지정리 지구는 1필지당 농경지 면적이 3000㎡이내 대구형은 최소 6000㎡에서 크게는 1만㎡에 달한다.

농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필지당 면적을 넓혔다.

대구형 경지정리사업은 농기계 출입이 쉽도록 농로를 확장하고 용배수로 정비, 객토와 복토 등 지력개선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모내기 철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일반지구 경지정리 면적은 전체 17만1000ha 중 89.6%인 15만5500ha가 완료됐으며 대구형경지정리 사업은 대상면적 4만393ha중 2만7354ha 마무리돼 68%를 기록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 '사랑의 집' 2호 준공

연제로타리클럽 윤진기 회장, 이성현 국제로타리 3610지구 차기총재, 김의준 총재 지역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 제공>

11일 오후 강진군 성전면 월송마을 최석주씨의 새 보금자리인 사랑의 집 2호 준공돼 최씨 가족이 입주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진읍 강진군수, 부산동 연제로타리클럽 윤진기 회장, 이성현 국제로타리 3610지구 차기총재, 김의준 총재 지역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 제공>

8월 나주 영산강서 전국 카누대회 열린다

오늘 8월 중순에 나주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영산강 전국 카누 대회가 열린다.

1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와 대학,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카

누, 래프팅 이외에 청소년, 대학, 직장부 등 대상으로 한 용선보트 경주도 열린다.

나주시는 대회 진행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영산강수상체육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나주=손영희기자 ycsn@

남원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박차

저소득층 자립 지원...직업훈련 수당도 인상

남원시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직업훈련수당도 올려 참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결혼이민자, 출소(예정)자,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먼저 참가자들의 구직의욕을 강화시킨 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자부담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의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증진해 준다.

이어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 및 동행 면접을 통해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성공시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탈수급 시에는 2년간 이월 특례를 보장하며, 희망기업육성장 우선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80명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1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참여해 7명이 취업하고 37명이 집중상담 및 간호조무사, 사무자동화, 피부미용 등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정에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

김제소방서 '현장' 선포

김제소방서가 11일 시민을 위한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소방현장'을 전국 소방서 최초로 선포했다.

소방현장은 "모든 일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에 두고 작은 소리 소리에 귀 기울여 '대민 섬김 소방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을 최우선 생각하는 소방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방 ▲세심하게 살피는 소방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을 표명했다.

유영철 서장은 "시민이 소방서의 존재 이유와 존립기반"이라며 "소방현장은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 미제천 대대적 정비

오염지류 개선 사업 실시

군산시 미제천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돼 새만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80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2016년까지 지방비까지 총 285억원을 들여 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미제천 준설과 함께 인근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3곳, 초기우수처리시설 1곳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규모 하천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 생태하천 복원 공사, 하수도, 가축분뇨 처리 시설 보강 등을 해 단기간에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김제 '벽골제'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

내일 김제시청서 가치 평가 토론회...학술용역도 실시

백제시대에 축조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알려진 김제 벽골제를 유엔(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전북도는 13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벽골제, 중요농업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업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한국농어촌유산학

회 회원권 교수, 최석인 교수, 한국농어촌연구원 박운호 박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군대 도내에서는 백제 비류왕 27년 축조된 벽골제의 세계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말 신청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FAO에서 2년 단위로 지정하는 세

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이미 지정된 세계 10개 도시와 9개 후보도시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농업문화유산은 유네스코(UNESCO)의 세계문화유산제도와는 다르게 독자적 농업제도, 생태 경관 지역을 FAO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지정되거나 신청된 것은 아직 없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한옥에 핀 산수유

11일 오후 전주시 한옥마을 향교를 찾은 관람객들이 꽃이 핀 산수유나무를 보며 봄을 음미하고 있다. /연필뉴스

11일 오후 전주시 한옥마을 향교를 찾은 관람객들이 꽃이 핀 산수유나무를 보며 봄을 음미하고 있다. /연필뉴스



화순 이용대체육관 무료 개방

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이후론 유료 전환

주민 건강증진·배드민턴 생활 체육 활성화

화순군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대 체육관 <사진>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로 이용대 체육관의 대관 신청이 없을 때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대 체육관은 배드민턴 코트 12면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 시설이 구비돼 있다. 배드민턴 코트를 이용하려면 개인라켓, 셔틀록 등을 준비하고 반드시 배드민턴 전용화(실내화)와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샤워실은 개인 타월 등을 자참해 이용하면 된다. /화순=조철수기자 css@

무료 개방이 끝나는 다음달 15일부터는 개인 이용료는 1회 2시간 기준 어른 1200원, 청소년 900원, 경로 및 어린이는 600원이다.

전용 사용료(4시간 기준)는 주간(야간) 체육행사의 경우 평일 6만원(9만원), 토·공휴일 9만원(12만원), 일반행사의 경우 평일 11만원(15만원), 토·공휴일 15만원(20만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용대 체육관은 군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및 타 시도 배드민턴 선수의 전지훈련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철수기자 css@

단신

전북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문열어

경로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전북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전주시 서신동 소재 전북도노인복지관에 입주한 이 센터에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4명 등 모두 6명이 상주하면서 경로당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경로당 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경로당 이용자 및 비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경로당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달 현재 도내 노인인구는 3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6418개소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내년 농림사업비 613억 신청

순창군은 내년도 농림사업비로 613억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올 초부터 농업인, 농업생산자 단체,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2014년도 농림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50개 사업이 신청됐다.

자율사업 31건에 188억원, 공공사업 17건에 314억원, 신규사업 2건에

110억원 등 총 사업비 613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6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와 관련 군은 농림사업 예산 신청 심의를 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지난 7일 갖고 내년도에 추진할 농림사업비 613억원을 최종 신청하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나무생산자 협동조합 출범

정읍지역 나무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정읍지역 조경수, 분재, 유실수, 지피식물, 양묘 등 생산능가 100여 명이 11일 오전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나무생산자 단종미인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 총회에 앞서 조경수 생산능가 12가구는 최근

나무생산자 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고문 이준상씨, 대표 김종관씨, 사무장 김준성을 추대했으며, 임원진은 이날 총회에서 최종 인준됐다. 조합 추진위는 지난달까지 정관심의, 발기위원회회의의 전환과 회의 개최 등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

남원시, 관광지 4가에 간이회전교차로 설치

남원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남원시 관광지 4가에 다음달까지 간이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관광지 4가가 올해 행정안전부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교통 전문가인 도로교통공단의 실시 설계를 거쳐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을 지속적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새로 진입하는 차량보다 이미 회전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